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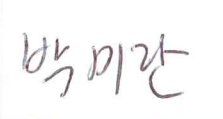



회의록

| 간 사 | 운영위원장 | 학교장 |
|---|--|---|
|  |  |  |

일 시 : 2020년 1월 20일(월요일) 11:00

장소 : 교장실

참석위원 : 학부모위원 : 이종천, 이동춘, 한용섭, 박미란(부위원장)

교원위원 : 정성돈, 최원복, 김미경

지역위원 : 김수연

의사 안건

1. 2020학년도 자유 학년제 운영계획(안)의 건
2. 2019학년도 학교 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건
3. 2020학년도 학교 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의 건

－ 부위원장(박미란) : 오늘 위원장님의 부재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학년도 제6회 이리남성여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교장(정성돈) : 입춘이 지났지만, 날씨가 오히려 한겨울 같습니다.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 부위원장(박미란) : 행정실장님으로부터 금일 회의 안건에 대한 안전상정 요청이 있습니다.

－ 행정실장(정동혁) : 첫 번째 2020학년도 자유 학년제 운용 계획안, 두 번째 2019학년도 학교 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인, 세 번째 2020학년도 학교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안전상정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박미란) : 행정실장님으로부터 안전 산정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건 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최광열 교과 활동지원부장님께서 설명해주십시오.

- 교과 활동지원부장(최광열) : 안녕하십니까? 자유 학기 관련해서 말은 최광열입니다. 자유 학기 관련해서 먼저는 자유 학기라는 말은 있는데 자유 학년이라는 말은 그냥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두 용어 모두 올바른 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자유 학기를 2학기 즉 자유 학년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자유 학기 강사라는 용어를 노동법상의 어떤 문제를 안고 싶지 않아서인지 전북교육청에서 프로그램 개인 위탁 운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원래는 1월의 학원에 계획에 따라서 모집 일정을 잡았었는데요. 하지만 연기되었기 따라서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모집분 야는 사전 학생들의 수요조사나 사후 만족도나 혹은 옆의 선생님들이 같이 지도할 때의 교육 효과를 고려해 몇 년 동안 가장 좋았던 분야만 모집하려고 합니다. 첫째 켈리 그라 피라고 예쁜 글씨를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만화나 웹툰 부, 뮤지컬과 방송 댄스, 첼로라고 되어있는데 선생님들이 비올라, 바이올린 등의 현악기를 지도 가능해서 현악부이고요. 그 사람 다음 다섯 번째는 클라리넷이라 되어있는데요. 관악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정서상 악기 교육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29일부터 어제까지로 공고 일자로 했고요. 오늘과 내일 모레 사이에 면접과 합격자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계약 내용은 1학기를 계약하는 것으로 하고요. 2학기는 특별히 재계약 절차를 밟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재계약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학기만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 부위원장(박미란) :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위원(한용섭) : 자유학기제 강사들과 오케스트라 강사는 다른 사람이죠?

- 교과 활동지원부장(최광열) : 네, 전혀 다른 분들입니다.

- 학부모위원(이성천) : 모집분 야가 5개인데 분야별로 강사 선생님들이 다 다르시죠?

- 교과 활동지원부장(최광열) : 네.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 제안은 다섯 분야로 했는데 여기 만화, 웹툰 부는 공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예산 예정액이 3천3백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두 학기에 작년 한 학기 사용한 예산으로 사용해야 해서 예산 사정상 다른 재료비나 운영비가 필요하므로 한 부서는 공고하지 않고 4개의 부서만 공고했습니다.

- 학부모위원(한용섭) : 악기들은 학교 것을 사용했다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 교과 활동지원부장(최광열) : 예 올해도 그렇게 합니다. 사서 하면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건이 되어있는 부서이면서 학생들의 교육과 좋은 부분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 행정실장(정동혁) : 마침 우리 학교가 오케스트라 부가 있는데 오케스트라 예산을 지원을 받고 그 예산을 아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박미란) : 이제는 질문이 없으시면 첫 번째 안건은 통과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번째 안건은 정동혁 행정실장님께서 설명해주십시오.

- 행정실장(정동혁) : 두 번째 안건은 2019학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자료 제안서 1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서가 세세히 설명되어있지만 어려울 거 같고요. 간략하게 제가 핵심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는지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 같고요.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어떤 추경 요건이 발생하겠습니다. 학교는 끊임없이 일일 추경이 발생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 인건비를 대략 세웁니다. 교육청에서 저희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을 지원해주는 예도 있는데 그사이의 간격 요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최종 계획이 정해지면 학교에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도 교육청 추경예산이 끝나면 학교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2019학년도 회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29일까지가 회기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이지만 아직 학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2020년도 3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는 2019학년도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하는 핵심은 총괄표 1페이지를 보시면 상단 부분을 보시면 기정 예산안이 있고 경정 예산안이 있는데 좌측 부분인 경정 예산안을 보셔야 합니다. (12:18) 기정 예산안은 2019학년도 확정 본예산이 되겠고 변동으로 경정예산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2019학년도 남성여중의 예산은 67억7천3백7십5만5천 원입니다. 보통 39억~4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19년도는 예년보다 25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체육관 20억 배정과 페인트 도색,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비 31억7천3백5십5만4천 원으로 교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기간제 교원 포함입니다. 그 밑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4억8천8백8십만 7천 원으로 학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도세, 전기세, 각종 공과금 교직원들의 출장비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운영비의 내용은 교과용 도서 지원비 4천6백만 원,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비 2천5백만 원 교무실무사 인건비 3천6백만 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경상 운영비로 목적을 지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이런 목적을 가진 사업비인 경상 운영비 1억2천4백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3억6천4백이 실질적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9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체육관 신축비 20억이 잡혀있습니다. 이 비용 등으로 인해 예산이 예년과 비교해 증액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체육관은 2020년 2월 말 설계종료 예정입니다. 설계가 끝나면 입찰 교육청에 설계검토 승인을 거쳐 아마 올해 5~6월 정도 착공을 해서 12월 준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착공되면 남성여중 단일 학교만의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위원(이성천) : 체육관 20억에 설계비 감리비 포함입니까?
- 행정실장(정동혁) : 네
- 학부모위원(이성천) : 설계에 대한 심의는 교육청에서 하시는지요?
- 행정실장(정동혁) : 1차 익산교육지원청 시설팀에서 설계검토를 심의해 주시고, 2차 4억 원 이상이 되면 도 교육청 일상 감사를 요청해서 두 번째 심의를 밖에 돼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술적인 부분은 지역교육청과 도 교육청에 승인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 학부모위원(이성천) : 심의과정에서 학교에서 원하는 모형이나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하셔야겠습니다.
- 행정실장(정동혁) : 네, 예산액 20억 중 2억은 지자체 지원액으로 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2019년도에 교장 선생님, 체육과 선생님들과 최근 신축된 체육관 위주 답사 결과 예산상 문제로 금액에 맞춰지는 설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다른 학교 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부모위원(이성천) : 우려 아닌 우려지만 설계 때 재료 선택에 있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예산 안에서 재료의 실용적 되었으면 합니다.
- 행정실장(정동혁) : 네, 그 말씀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박미란) : 이제는 질문이 없으시면 두 번째 안건도 통과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도 정동혁 행정실장님께서 설명해주십시오.
- 행정실장(정동혁) : 세 번째 안건은 2020학년도 교육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번 총괄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본예산은 41억7천1백43만1천 원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2019년도 체육관이 포함된 금액보다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31억2천5백5십5만6천 원입니다. 기간제교사 포함 교직원 인건비로 변수가 있습니다. 임용된 기간제교사의 연봉에 따라 변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5억3천9백6십7만7천 원입니다. 여기엔 교과서 부상지원비 4천6백만 원,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지원비 2천5백만 원, 교무실무사 인건비 3천8백만 원, 자유 학년제 지원운영비 2천5백7십만 원, 학교 자율선택 과제운영비 8백만 원, 공기청정기 운영지원비 5백만 원의 경상 운영비 포함입니다. 1억5천6백을 제외한 3억8천3백만 원이 연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교육청에서 교부된 예산액으로 내용을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우유 급식비, 교복구입비는 교육청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수익자 부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지역위원(김수연) : 수학여행 비는 지원비는 인상이 없는지요?
- 행정실장(정동혁) : 네, 아직 없었습니다. 2019학년도에 20만 원, 교복구입비는 30만

원이었습니다.

- 학부모위원(한용섭) : 2019년에 비해 2020년도 인건비가 줄었는데 퇴직자가 계신가요?
- 행정실장(정동혁) : 네, 퇴직자도 있습니다만, 기간제교사의 정확한 호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안입니다. 내년 추경에 정확히 반영됩니다.
- 학부모위원(한용섭) : 인건비는 매달 교육청에 입금이 되나요?
- 행정실장(정동혁) : 네, 매달 17일 이전에 학교 통장으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박미란) : 이제는 질문이 없으시면 세 번째 안건도 통과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실장님으로부터 공지사항을 듣겠습니다.
- 행정실장(정동혁) : 두 번 회의가 마지막이 아니라 2019학년도 결산안을 가지고 소집이 있습니다. 차기 회의는 2020년 3월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회기는 매해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위원장(박미란) : 그럼 이것으로 2019학년도 제6회 학교운영위원회를 마칩니다. (의사봉 3타).